

物質特許導入은 時機尙早

各界 意見 約 檢討後 導入해야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物質特許導入 要請에 대한 處理 問題를 놓고 政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與件으로 보아 당장 導入이 어려운게 事實이지만 언젠까지나 先進國들의 壓力을 回避할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이다.

政府는 그러나 物質特許를 導入하지 않으면 對韓技術移轉 忌避등 強更措置를 취하겠다는 先進國 特히 美國의 壓力이 加重되는 데다가 國際的인 物質特許導入 趨勢를 감안해 物質特許導入 原則을 세우고 적정시기를 檢討하기에 이르렀다.

政府는 지금까지 先進國들의 物質特許導入 要請에 最新技術의 先進國 獨占에 따른 로열티 상승, 이로인해 業界와 消費者들의 부담이 加重되고 高級人力 및 막대한 研究開發費 投資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拒否해왔다.

그러나 外部의 壓力때문이 아니라 우리 産業과 技術의 긍정적인 向上을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自發的으로 이 制度를 採擇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상당기간을 두고 신중히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될 重大事이다. 物質特許가 導入될 경우 우리에게서 지금 막 쌓이 돌고 있는 각종 尖端産業分野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 産業으로서는 사실 死活이 걸렸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은 우리나라가 物質特許를 導入할 경우 醫藥 및 化學産業 發展을 促進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研究開發에 必要한 資金을 보다 쉽게 끌어들이 수 있다고 主張하면서 物質特許의 早速한 導入을 促求했다.

그러나 우리의 現 技術水準이나 經濟力 水準을 감안할 때 아주 基本的인 物質特許의 導入을 美國이 우리에게 強하게 要請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않다.

技術大國으로 自負하는 日本마저 이 物質特許를 導入한 것은 당초 美國의 要請이 있어 導入檢討에 着手했던 時期부터 26년이 흐른 지난 76年이었다.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갖춘 이후에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은 것이다.

더우기 美國의 바로 이웃인 캐나다·오스트리아·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 등의 유럽 先進國들조차 아직 導入하지 않고 있다. 이유야 물론 自國産業의 發展과 保護를 위해서다. 이런 點들을 고려할 때 美國이 우리에게 각종 으뜸장까지 놓으며 物質特許의 導入을 強力히 促求하는 것은 너무 큰 것을 要求하는게 아닌가 하는 서운함까지 느끼게 한다.

하기야 多數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開發途上國이나 後進國들이 벌써부터 物質特許를 導入하고 있는 事例도 있으나 이는 본받을 바가 못된다.

따라서 物質特許의 導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성급히 論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內實을 다짐과 아울러 得失을 時差를 두고 各界의 意見을 集約·檢討한 다음에 신중히 決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W>